

고학력 성인학습자가 기대하는 대학교육의 학습성과 탐색*

정혜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책임연구위원)*
노일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책임연구위원)
김명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선임연구위원)
우영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책임연구위원)

요약

본 연구는 고등교육 보편화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성인학습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들이 다시 대학교육에 참여하면서 기대하는 대학에서의 학습성과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6개 학습성과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대학의 수행도에 대한 인식을 4년제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대졸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841명의 응답 결과를 IPA 분석,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차적 사고력, 정보기술활용 능력, 글쓰기 능력, 시민의식 함양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은 반면 현재 대학의 수행을 높지 않게 평가함으로써 대학의 집중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위나 자격증 취득, 높은 학점 취득, 교양지식 습득에 대해서는 고학력 학습자들의 기대에 비해 대학이 과잉 집중하고 있는 항목으로 나타나 대학의 교육전략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고학력 성인학습자, 대학교육 학습성과, 핵심역량, 고등교육 보편화

I. 문제제기

평생교육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 이 논문은 2022년에 수행된 「대졸 학습자의 방송대 교육요구 분석」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분석, 작성한 것임

† 주저자: 정혜령(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hyerjung@mail.knou.ac.kr)

도 예외가 아니어서 역사적으로 1970년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시작으로 학점은행제와 같은 대안적 고등교육 형태, 사이버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같은 비학위과정을 거쳐 최근 일반대학의 정규 학위과정까지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기회는 확대되었다(최동선 외, 2021). 이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생존 전략, 그리고 개인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성인학습자의 필요와 요구가 한데 얽혀 발생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소위 전통적인 청년대학생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육 기회를 미루거나 놓친 학습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들은 대학에 입학한 성인학습자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기간 직업생활이나 개인 생활을 보낸 후 생애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성인’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인대학생의 진학 동기가 무엇인지(한상길, 2011; 홍아정, 2010), 성인대학생이 학업을 포함한 대학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박진영, 2010; 이지혜, 권진희, 2016), 성인대학생들이 직장 혹은 가정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박진영, 2008) 등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성인대학생을 이상과 같이 단일한 집단으로 이해하는 경우 다양해진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성인학습자의 이전 생애 경험은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대학교육의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onaldson & Graham, 1999; Kaswrom, 2018). 따라서 성인대학생을 단일한 기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정교한 특성 분석에 기초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학의 성인학습자 중 고학력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생애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성인의 숫자는 감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소연(2014)은 대학평생교육이 기존의 학위취득형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재교육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성인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고학력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그치거나 특정하게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현용, 2013; 이성희, 2017 참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미 대학교육을 경험한 고학력 성인학습자가 대학교육, 그것도 학부교육과정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생애 처음 대학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대학 입학 동기와 다를 수 있다. 고학력 성인학습자에게 학위취득을 통한 학력상승은 더 이상 중

요한 대학입학 동기가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학습자의 강력한 대학입학 동기 중 하나로 인식되어 온 ‘배움의 한’(한상길, 2011)은 고학력 학습자에게는 더 이상 주된 동기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학교육의 성과로 무엇을 중요하게 그리고 의미있게 기대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이 기대하는 대학교육의 성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대상인 ‘고학력 학습자’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정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대학 학부교육과정에 대한 기대를 주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의 주요한 학습성과 항목을 도출하고, 각 항목에 대해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수행도를 성, 연령, 계열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대학이 노력해야 할 교육전략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대학의 교육 설계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II. 선행연구 분석

1. 대학교육의 학습성과와 구성요소

대학교육에서 학습성과는 대학에서 학습한 결과 학생들이 얻게 되는 긍정적 변화로 능력이나 성취를 포괄하여 측정된다(최정윤, 이병식, 2009). 이러한 변화는 교육기관이 의도한 목표에 따라 학생이 실제로 얻게 되는 변화로 접근되기도 하고, 기관의 교육 의도와 관계없이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설명되기도 한다(최운실, 2005). 최근 고등교육 보편화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학교육의 학습성과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한데, 일반적으로 학습성과를 규명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관련 연구들에서 규명되는 학습성과의 구성요소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지만 대체로 인지적 영역과 비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져 왔다. 관련해 초기 연구를 진행한 Ewell(1985)은 대학의 학습성과를 인지 발달, 기술 발달, 태도 발달, 대학 이후의 성취로 구분한 바 있다. 1990년대 초 Astin이 대학의 학습성과를 크게 인지적, 비인지적 성과로 구분한 이후 세부 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 구분은 유지되고 있다(Astin & Antonio, 2012). Shavelson & Huang(2003)은 인지적 성과, 개인적·사회적 성과, 시민적 성과로 대학의 학습성과를 구분하였으며, 비인지적 학습성과에 정의적 요소와

함께 시민적 요소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서민원 외(2013) 역시 대학생의 학습성과를 인지적 역량, 사회·심리적 역량, 자기인식, 대학만족도로 구분하면서 비인지적 학습성과의 세부 구성요소에 봉사의식, 다문화 이해 등을 포함하였다.

최근의 학습성과는 역량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역량은 교육이 끝난 후 학생들이 학습의 결과로 획득하는 스킬, 능력으로 인지적 측면과 비인지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Holmes & Hooper, 2000). 역량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의 학습성과를 접근한 시도는 OECD에서 수행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AHELO)가 대표적이다. AHELO는 고등교육의 학습성과로 문제해결능력, 분석적 추론능력, 비판적 사고력,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을 제시하였다(최정운, 2009).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진단하는 도구인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개발하였는데, 핵심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 종합적 사고력, 자원·정보·기술 활용능력, 글로벌역량,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의 6가지 역량을 제시하였다(진미석 외, 2007).

대학의 학습성과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학습성과는 크게 인지적 영역과 비인지적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인지적 영역에는 지식, 정보, 기술 등이, 비인지적 영역에는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학습성과에 관한 연구는 이들을 포괄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정부나 교육기관의 의도, 즉 교육제 공자의 의도와 목표에 기반하여 학습성과에 접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대학기관의 교육에 대한 평가나 교육제공자가 제시한 기준에 대한 학습자의 도달 정도를 측정한다. 반면, 학습자 입장에서 대학생이 기대하는 학습성과를 다룬 연구도 발견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학습자의 교육요구,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육의 가치와 만족도 등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학생의 교육요구에 대한 연구는 최근 대학에서의 학습성과 연구와 마찬가지로 역량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 직접 질문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핵심 역량을 도출하거나 대학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역량들에 대한 대학생의 교육요구도를 분석한다(김연희 외, 2010; 변수연, 한우진, 2022). 대학생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역량들은 연구 간의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전공지식과 직무능력, 자기주도성 혹은 자기관리 능력 등이 공통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업의 가치와 만족도를 다룬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의 가치로 주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소가 교육을 통해 획득되었을 때 교육에 몰입하고 성과 획득에 유리하며 높은 교육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훈(2018)의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통제, 학업가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목표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결

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하며 목표몰입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변수연, 이수정, 배상훈(2023)은 소비자 만족의 관점에서 대학생이 기대하는 대학교육의 성과, 비용부담, 교육서비스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Bhattacharjee(2001)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소비자 만족은 소비자의 심리 즉 이용 전의 기대나 목표, 실제 경험과의 일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기대확인)이 소비자 만족을 높인다”(변수연, 이수정, 배상훈, 2023: 286)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입학 전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 실제 대학경험, 그리고 지불 비용 등에 의해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검토한 대학교육의 학습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그 구성요소로 인지적 성과, 비인지적 성과, 그리고 역량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교육자가 목표로 하는 성과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학습성과를 대학교육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할 때 학습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인학습자가 기대하는 대학교육의 성과

성인학습자가 기대하는 대학교육의 성과는 우선 학습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추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인학습자의 대학입학 동기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로 인해 쌓인 ‘배움의 한(限)’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구유정, 오석영, 박수연, 2021; 남신동, 2013; 한상길, 2011)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들 연구에서 주목한 성인학습자들은 주로 생애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이었다.

성인학습자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Houle(1961)의 논의에 기초한다. 그는 성인학습자의 동기 유형을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지향하는 활동지향형, 다른 과업의 수단으로서 학습을 지향하는 목적지향성, 그리고 지적 호기심 충족과 배움 그 자체를 지향하는 학습지향형으로 구분한다(Houle, 1961).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참여동기를 Houle의 동기 유형에 기반하여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비형식교육으로서 대학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 참여동기에 대해서 이숙원(2002)과 이정희(1997) 등은 배움의 즐거움이나, 교육 참여의 욕구 등 학습지향의 동기가 많이 나타남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원격대학이나 평생학습중심대학 등 정규 고등교육과정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상당 부분 학위 취득 및 직업 준비라는 특정 목표를 가지고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옥 외, 2012; 양은아, 김민수, 안소희, 2021; 이은경, 정연희, 김명진, 2020; 이지혜, 권진희, 2016; 최상덕, 한효정, 2019). 연령대가 높은 학습자의 경우, 학업의 즐거움, 사회관계 확장 등의 동기가 우세한 반면,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는 취업, 승진, 상급학교 진학 등의 이

유로 대학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삼근, 윤혜경, 박진아, 2011; 박진영, 2007; 양은아, 김민수, 안소희, 2021; 정연희, 한송이, 2018). 이와 유사하게 승진, 학위취득, 자격증 취득과 같은 외적 동기와 자기만족, 학업욕구 충족 등과 같은 내적 동기로 구분하기도 한다(황영아, 이선희, 정소미, 2020)

한편 성인학습자가 기대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학습성과와 교육요구를 다룬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습성과와 관련해서는 성인학습자가 대학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 변화와 긍정적 인식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되기도 하고(김애련, 2004),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개인 능력의 성취, 성취감과 만족감과 같은 학습만족감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구주영, 한상훈, 강훈, 2015; 신미정, 정철화, 우희정, 2020). 또한 성인대학생과 교수들이 인식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의 차이로 교육요구를 비교분석한 박진영 외(2014)의 연구는 성인대학생이 인식한 최우선 순위의 핵심역량은 전공이론기초, 자기통제, 직업능력개발, 미래전망, 자발적 학습, 시간관리, 환경변화 민감, 자기주도학습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들은 고학력 성인학습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연구결과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대학교육의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참여와 관련해 목적지향형과 학습지향형이 지배적인 참여동기로 나타난다. 성인학습자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현재 직업이나 새로운 진로에 도움이 되는 학위, 자격증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거나 전문적인 능력개발이나 자신감 획득과 같은 내면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참여 동기

고학력 성인학습자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우선 이들의 대학교육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목적지향형 동기와 학습지향형 동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Flynn(2006)과 Francois(2014)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습자는 고졸학습자에 비해 전문성 향상, 경력 전환, 지적 성장 등에 대한 동기로 대학 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송영선(2018)은 평생교육기관의 학점은행제 과정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참여 동기와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자 자신의 능력증진이나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나래(2020)는 사회복지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원격대학에 참여한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동기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학력자를 석사학위 이

상의 학력을 가진 학습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교육동기가 목적지향형 동기로 참여했지만 학습 과정에서 학습지향형의 특징도 나타난다는 것을 질적 연구를 통해 드러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학위취득’이라는 목적이 지배적인 대학 입학 동기이지만 고학력자들이 표현한 의미는 성인학습자의 일반적인 대학입학 동기로 이해해 온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박소연(2014)은 대학교육 경험이 있는 성인과 그렇지 않은 성인의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이들 간에는 학위취득의 목적이 학력상승과 전문성 향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성희(2017)는 4년제 일반대학의 학부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20, 30대 여성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부교육 경험에 대해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성인여성대학생들은 대학졸업 이후 결혼과 직장생활에서 경험한 성차별적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나은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고자 대학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 연구자는 학위취득이 취업이나 승진을 위한 단순한 외적 동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이 대학교육의 학습성으로 기대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문성 향상, 지적성장, 능력개발 등을 기대하는 것과 함께 학습경험 그 자체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이 기대하는 학사학위 취득이라는 기대성과는 일반적인 성인학습자의 대학입학 동기로 알려진 ‘배움의 한(恨)’이나 ‘학력상승 요구’ 이외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고학력 학습자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은 대학교육의 참여동기에 주목함으로써 평생학습자로서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성인이 다시 대학 학부과정에 참여하는 현상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고학력 학습자를 대졸이상으로 보고, 이들이 학력 상승의 효과가 없는 대학의 학부과정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학습의 성과로 무엇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성인학습자가 주학습자층인 A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교육부의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인해 성인이 입학할 수 있는 4년제 일반대학의 수와 성

인학습자 수는 과거에 비해 증가했지만, 개설학과나 전공은 아직 다양하지 않고 고학력 성인 학습자를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반면 A대학은 원격대학으로 다양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연령, 직업, 최종학력 등에서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A대학교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A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학년 신입생,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를 대상으로 2, 3학년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1998년을 기점으로 편입학 지원자가 신입학 지원자 수를 넘어섰다. A대학교 내부의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학년도에의 경우, 전체 입학지원자 중 편입학 지원자 비율은 약 72%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편입학 지원자 중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편입학 지원자 중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A대학교의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우선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중 최종학력에 '4년제 일반대학 졸업 이상'이라고 응답한 841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개인배경은 <표 1>과 같은데 남성, 40대, 3학년 편입생, 전일제 근무자, 자연/공학계열 응답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특히 입학자격에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1학년 입학과 2학년 편입생도 응답자의 32.6%로 나타나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도 1학년 입학 혹은 2학년 편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설문참여자의 배경변인별 분포

구분		학생 수	비율(%)	구분		학생 수	비율(%)
성별	여성	353	42.0	직업	전업주부	90	10.7
	남성	488	58.0		전입학생	76	9.0
연령	20대 이하	60	7.1		전일제근무자	500	59.5
	30-39세	213	25.3		시간제근무자	175	20.8
	40-49세	265	31.5	전공 계열	인문	170	20.2
	50-59세	188	22.4		사회	239	28.4
60대 이상	115	13.7	자연/공학		259	30.8	
입학 유형	1학년 신입	128	15.2	교육	173	20.6	
	2학년 편입	146	17.4	합계		841	100.0
	3학년 편입	567	67.4				

2. 설문지 구성

학습성과 조사항목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진 협의를 거쳐 구성하였다. 선행연

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성과의 주요 내용은 지식, 정보, 기술 등을 포함한 인지적 영역,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특성을 포함한 비인지적 영역, 이들을 포괄하는 역량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참여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대체로 목적지향형과 학습지향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드러내는 구성요소도 포함하였다. 논의 결과 16개의 학습성가로 정리하였고, 학습한 결과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시적 학습성과와 학습자 개인의 내적 변화 및 성취와 관련된 비가시적 학습성가로 범주화하였다. 설문 문항은 각 성과항목에 대해 설문참여자들이 인식한 중요도와 현재 교육의 수행도를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중요도는 ‘일반적으로 성인학습자로서 대학에서 (조사 내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행도는 ‘현재 대학교육을 통해 (조사 내용)을 할 수 있다’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 항목과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항목 및 내용

영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가시적 학습 성과	학위 취득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졸업
	자격증 취득	자격증을 취득
	높은 학점 취득	높은 성적을 취득
	관심 과목 이수	졸업보다 관심있는 과목 이수
비가시적 학습 성과	전공지식 습득	심화된 전공지식과 기술을 습득
	교양지식 습득	폭넓은 교양지식을 습득
	직업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	희망하는 직업 또는 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
	글쓰기 능력 함양	명료하고 효과적인 글쓰기 능력 함양
	말하기 능력 함양	명확하고 효과적인 말하기 능력 함양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고차적 사고력 함양	비판적, 분석적 사고능력 함양
	자기주도학습 역량 함양	스스로 학습영역을 탐색하고, 학습계획을 수립·수행하는 능력 함양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자기 효능감 향상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신감 함양
	협업 능력 향상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 함양
	시민의식 향상	교양있는 시민으로서의 의식 함양

3. 분석 방법

우선 응답자들의 집단별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 중요하게 기대하는 학습성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t-검정,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성별, 연령별, 계열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학이 노력해야 할 학습성과 항목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IPA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Borich의 교육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LF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IPA 분석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책이나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속성에 대해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행도를 측정하고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Borich 요구도 분석은 중요도와 현재 수준 간 차이를 도출하고 중요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요구도를 산출함으로써 중요도와 현재 수행도 수준 간의 단순 차이로 요구도를 살펴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LF 모델 분석은 Borich 요구도를 IPA와 같이 좌표평면에 제시함으로써 우선순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조대연, 2009). 마지막으로 IPA 분석과 Borich 요구도, LF 모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설문참여자들이 대학교육에 기대하는 학습성과 중 A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와 집단별 비교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학교육의 기대성과 가운데 중요도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함양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공지식 습득이 4.27, 고차적 사고력 함양이 4.23 순으로 나타났고, 자격증 취득, 높은 학점 취득, 관심 과목 수강, 말하기 능력 함양, 협업능력 향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4.0 이상으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의 수행도는 학위취득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주도학습 역량 함양이 4.15, 높은 학점 취득이 4.08 순으로 나타났고, 다른 항목은 4.0 미만으로 나타나 수행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가시적 성과보다 비가시적 성과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현재 대학의 수행도에 대해서는 가시적 성과 항목들을 비가시적 성과 항목들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중요도와 수행도를 비교해 보면, 가시적 성과항목들에 대해 현재 대학의 수행 수준을 중요도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반면, 비가시적 성과 항목들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비해 현재 대학의 수행 수준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교육 기대성과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기대성과		중요도		수행도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가시적 성과	학위 취득	4.05	.91	4.18	.79	-.14	.99	-3.95***
	자격증 취득	3.86	.95	3.72	.97	.14	1.07	3.86***
	높은 학점 취득	3.65	.91	4.08	.83	-.43	1.06	-11.69***
	관심 과목 이수	3.87	.96	3.88	.90	-.01	1.17	-.26
비가시적 성과	전공지식 습득	4.27	.69	3.81	.88	.46	.95	13.92***
	교양지식 습득	4.00	.82	3.82	.88	.19	.95	5.68***
	직업관련 지식기술 습득	4.02	.82	3.46	.93	.56	1.02	15.98***
	글쓰기 능력 함양	4.12	.79	3.48	.96	.64	1.03	18.20***
	말하기 능력 함양	3.94	.86	2.83	1.00	1.11	1.22	26.52***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4.11	.72	3.46	.90	.65	.99	18.94***
	고차적 사고력 함양	4.23	.73	3.46	.93	.76	1.04	21.35***
	자기주도학습 역량 함양	4.38	.68	4.15	.85	.23	.85	7.83***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	4.22	.69	3.74	.88	.48	.91	15.19***
	자기효능감 향상	4.20	.76	3.73	.93	.47	.92	14.76***
	협업 능력 향상	3.98	.85	2.90	1.11	1.08	1.26	24.94***
	시민의식 향상	4.09	.82	3.57	.94	.53	1.00	15.3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성별, 연령별, 전공계열 등 학생들의 개인변수가 대학교육 기대성과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세 변수를 기준으로 집단별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성별 차이는 <표 4>와 같은데 대부분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도와 수행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격증 취득, 전공지식 습득, 직업관련 지식기술 습득, 자기주도학습역량 함양,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에서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에서 남녀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대학교육 기대성과의 중요도와 대학의 현재 수행도에 대한 성별 평균비교

기대성과		성별	중요도			수행도		
			평균	표준편차	t값/p	평균	표준편차	t값/p
가시적 성과	학위 취득	여성	4.04	0.930	-1.05	4.08	0.868	-3.027**
		남성	4.05	0.896		4.25	0.728	
	자격증 취득	여성	3.71	0.971	-3.912***	3.50	0.954	-5.881***
		남성	3.97	0.918		3.89	0.944	
	높은 학점 취득	여성	3.61	0.947	-1.056	4.04	0.844	-1.385
		남성	3.68	0.874		4.12	0.814	
	관심 과목 수강	여성	3.99	0.889	3.329**	3.83	0.932	-1.330
		남성	3.78	0.998		3.91	0.881	
비가시적 성과	전공지식 습득	여성	4.18	0.752	-2.985**	3.68	0.913	-3.777***
		남성	4.33	0.640		3.91	0.838	
	교양지식 습득	여성	3.93	0.840	-2.115*	3.80	0.891	-.313
		남성	4.05	0.806		3.82	0.870	
	직업관련 지식기술습득	여성	3.86	0.902	-4.643***	3.30	0.974	-4.198***
		남성	4.13	0.742		3.57	0.876	
	글쓰기 능력 함양	여성	4.04	0.825	-2.518*	3.45	0.959	-.607
		남성	4.18	0.760		3.49	0.955	
	말하기 능력 함양	여성	3.85	0.883	-2.401*	2.86	1.046	.814
		남성	4.00	0.842		2.80	0.974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여성	4.01	0.805	-3.278**	3.45	0.910	-.346
		남성	4.18	0.652		3.47	0.887	
	고차적 사고력 함양	여성	4.15	0.774	-2.565*	3.42	0.924	-1.025
		남성	4.28	0.694		3.49	0.942	
	자기주도학습 역량 함양	여성	4.30	0.739	-2.932**	4.03	0.903	-3.706***
		남성	4.44	0.629		4.24	0.798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	여성	4.12	0.733	-3.625***	3.67	0.909	-2.138*
		남성	4.29	0.652		3.80	0.858	
	자기효능감 향상	여성	4.08	0.844	-3.732***	3.69	0.932	-1.016
		남성	4.28	0.681		3.75	0.920	
협업 능력 향상	여성	3.87	0.943	-3.103**	2.93	1.087	.530	
	남성	4.06	0.761		2.89	1.124		
시민의식 향상	여성	4.00	0.863	-2.830**	3.52	0.923	-1.318	
	남성	4.16	0.785		3.60	0.958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연령별, 전공계열별 학습성과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교육 기대성과에 대한 인식에서 연령별 집단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20대 이하에서 직업관련 지식기술 습득, 글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정보기술 활용 능력 함양 항목이, 그리고 수행도에 대한 평가

에서는 60대 이상이 관심 과목 수강, 교양지식 습득, 말하기 능력 함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5> 대학교육 기대성과의 중요도와 대학의 현재 수행도에 대한 연령별 평균비교

기대성과		중요도						수행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F값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F값
가시적 성과	학위 취득	4.23	4.03	4.03	4.12	3.90	1.721	4.30	4.13	4.22	4.16	4.16	.788
	자격증 취득	3.97	3.79	3.90	3.91	3.79	.913	3.88	3.71	3.76	3.72	3.57	1.198
	높은 학점 취득	3.67	3.62	3.65	3.69	3.65	.142	3.97	4.11	4.02	4.14	4.14	1.084
	관심 과목 수강	3.83	3.86	3.79	3.88	4.05	1.511	3.68	3.77	3.89	3.97	4.02	2.493*
비가시적 성과	전공지식 습득	4.35	4.34	4.28	4.22	4.14	2.063	3.73	3.75	3.87	3.82	3.83	.655
	교양지식 습득	4.03	3.90	4.00	4.04	4.13	1.720	3.62	3.67	3.81	3.96	3.97	4.511**
	직업관련 지식기술습득	4.22	4.12	4.02	3.95	3.83	3.412**	3.48	3.51	3.46	3.43	3.38	.409
	글쓰기 능력 함양	4.33	4.12	4.08	4.21	3.97	3.009*	3.15	3.38	3.43	3.65	3.65	5.039
	말하기 능력 함양	4.28	3.93	3.89	3.96	3.83	3.120*	2.45	2.77	2.74	3.01	3.03	5.638***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4.32	4.10	4.06	4.17	4.01	2.439*	3.43	3.50	3.44	3.49	3.39	.378
	고차적 사고력 함양	4.42	4.24	4.23	4.23	4.07	2.383	3.42	3.44	3.51	3.49	3.39	.780
	자기주도학습 역량 함양	4.52	4.39	4.38	4.39	4.30	1.062	4.12	4.10	4.22	4.18	4.08	.514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	4.38	4.19	4.25	4.22	4.13	1.494	3.58	3.65	3.77	3.86	3.73	2.055
	자기효능감 향상	4.18	4.16	4.20	4.28	4.13	.840	3.45	3.66	3.78	3.79	3.77	2.171
	협업 능력 향상	4.10	3.85	4.02	4.01	4.03	1.527	2.70	2.76	2.91	3.02	3.06	2.585
	시민의식 향상	4.25	4.03	4.06	4.20	4.03	1.988	3.42	3.48	3.60	3.70	3.50	2.014

* $p < .05$, ** $p < .01$, *** $p < .001$

전공계열 간 차이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요도의 7개 변수, 수행도의 9개 변수에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전공계열 집단 간 차이를 보인 변수는 자격증 취득, 교양지식 습득, 직업관련 지식기술 습득, 협업 능력 향상, 글쓰기

능력 함양, 시민의식 향상 등 6개 항목이었다. 자격증 취득, 직업관련 지식기술 습득, 협업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교육계열 학생들이 중요도와 수행도를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높게 평가한 반면, 교양지식 습득에 대해서는 인문계열 학생이 중요도와 수행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특히 자격증 취득은 중요도와 수행도 측면에서 모든 전공계열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전공계열별로 학생들이 기대하는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차가 가장 큰 것으로 해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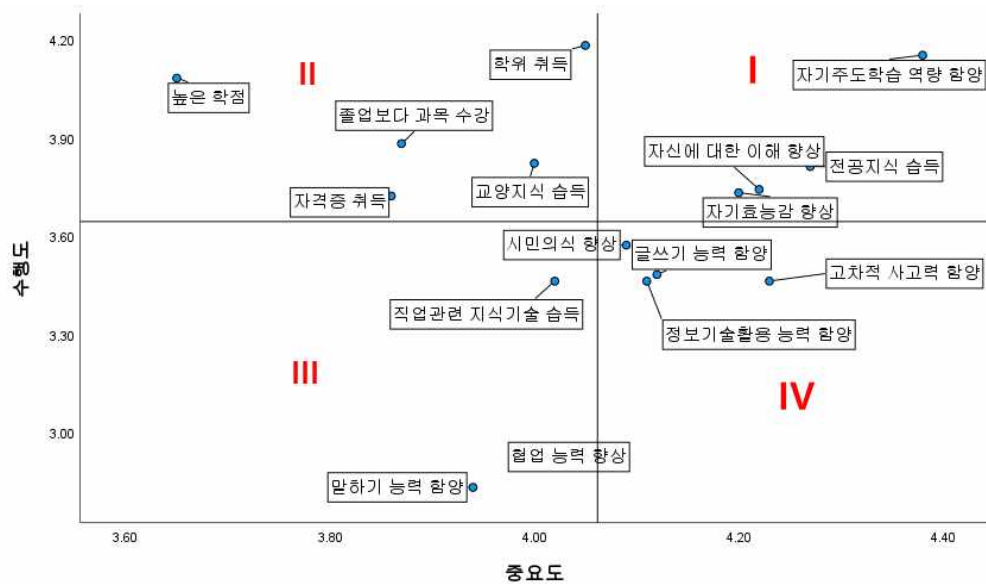
<표 6> 대학교육 성과 중요도와 대학의 현재 수행도에 대한 계열별 평균비교

기대성과		중요도					수행도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교육	F값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교육	F값
가시적 성과	학위 취득	4.02	4.02	4.08	4.06	.254	4.18	4.20	4.11	4.27	1.535
	자격증 취득	3.67	3.90	3.85	4.02	3.398**	3.24	3.72	3.76	4.14	27.243***
	높은 학점 취득	3.66	3.68	3.61	3.67	.251	4.25	3.97	4.03	4.16	4.834**
	관심 과목 수강	4.09	3.77	3.87	3.77	4.519**	3.95	3.84	3.90	3.83	.719
비가시적 성과	전공지식 습득	4.31	4.23	4.23	4.34	1.190	3.92	3.71	3.72	3.98	5.364**
	교양지식 습득	4.15	4.04	3.80	4.12	7.934***	3.99	3.78	3.67	3.91	5.576**
	직업관련 지식기술습득	3.84	4.10	4.00	4.11	3.891**	3.31	3.43	3.43	3.68	4.823**
	글쓰기 능력 함양	4.22	4.13	4.00	4.20	3.490*	3.59	3.41	3.32	3.71	7.074***
	말하기 능력 함양	3.95	3.98	3.85	3.99	1.259	2.98	2.83	2.62	2.97	6.268***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4.09	4.10	4.07	4.18	.798	3.45	3.45	3.49	3.45	0.108
	고차적 사고력 함양	4.24	4.21	4.15	4.34	2.219	3.48	3.43	3.39	3.60	1.754
	자기주도학습 역량 함양	4.48	4.38	4.30	4.42	2.530	4.21	4.11	4.10	4.23	1.217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	4.25	4.20	4.15	4.32	2.184	3.86	3.67	3.68	3.83	2.568
	자기효능감 향상	4.16	4.16	4.18	4.31	1.556	3.79	3.61	3.75	3.80	1.971
	협업 능력 향상	3.92	3.97	3.92	4.16	3.346*	2.81	2.84	2.75	3.31	10.213***
	시민의식 향상	4.13	4.09	3.99	4.22	3.063*	3.54	3.59	3.44	3.75	3.791*

* $p < .05$, ** $p < .01$, *** $p < .001$

2. 대졸 성인대학생의 대학교육 기대성취에 대한 IPA 분석

대학교육에 대해 기대하는 성과의 중요도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수행을 비교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졸 성인대학생의 대학교육 기대성취에 대한 IPA 분석

대학교육 성과 항목들의 중요도 평균은 4.06, 수행도 평균은 3.64로 이를 기준으로 네 개의 영역으로 항목들이 나누어진다. 제 1사분면의 ‘유지 영역’은 응답자들이 대학교육의 성과 중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수행도도 높게 평가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은 항목들이다. 이 영역에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함양, 전공지식 습득,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 자기효능감 향상이 위치하였다.

제 2사분면은 ‘과잉 영역’으로 응답자들이 대학교육의 성과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이 기대 이상으로서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항목들이다. 분석 결과, 학위 취득, 높은 학점 취득, 자격증 취득, 졸업보다 과목 이수, 그리고 교양지식 습득이 이 영역에 위치하였다.

제 3사분면은 ‘저순위영역’으로 응답자들이 대학교육의 성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수행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으로써 대학이 점진적으로 개선해도 충분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직업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 협업능력 향상, 말하기 능력 함양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사분면은 ‘집중 영역’으로 응답자들이 대학교육에 대해 기대하는 성과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항목들이지만 현재 참여하는 대학교육의 수행도는 평균보다 낮게 평가한 항목들이다. 이 성과항목들은 대학에서 우선 집중적으로 개선노력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 영역에는 고차적 사고력 함양,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글쓰기 능력 함양, 시민의식 함양이 위치하였다.

IPA 분석 결과, 대졸 성인대학생들이 대학교육에 기대하는 16개의 성과 항목들은 유지 영역에 4개, 과잉 영역에 5개, 저순위 영역에 3개, 집중 영역에 4개 항목이 위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졸 성인대학생들은 공식적인 학습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서는 학교가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가시적 성과인 핵심역량 특히 고차적 사고력, 정보기술활용 능력, 글쓰기 능력 함양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학교육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대졸 성인대학생의 대학교육 기대성과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Borich 요구도 점수를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순위는 말하기 능력 함양, 협업 능력 향상, 고차적 사고력 함양,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글쓰기 능력 함양, 직업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 시민의식 향상,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 자기효능감 향상, 전공지식 습득, 자기주도 학습 역량 함양, 교양지식 습득, 자격증 취득, 졸업보다 과목 이수, 학위 취득, 높은 성적 순으로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요구도 순위가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대졸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기대성과에 대한 Borich 분석 및 LF 모델

학습 성과		Borich		LF 모델	최종 우선 순위
		요구도	우선 순위	영역 (중요도/요구수준)	
가시적 성과	학위 취득	-.55	15	LL	
	자격증 취득	.55	13	LL	
	높은 학점 취득	-1.57	16	LL	
	관심 과목 수강	-.04	14	LL	

고학력 성인학습자가 기대하는 대학교육의 학습성과 탐색

비가시적 성과	전공지식 습득	1.94	10	HH	
	교양지식 습득	.75	12	LL	
	직업관련 지식기술 습득	2.26	6(○)	LH	
	글쓰기 능력 함양	2.65	5(○)	HH	최우선
	말하기 능력 함양	4.38	1(○)	LH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2.66	4(○)	HH	최우선
	고차적 사고력 함양	3.22	3(○)	HH	최우선
	자기주도학습 역량 함양	1.01	11	HL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	2.02	8	HH	
	자기효능감 향상	1.97	9	HH	
	협업 능력 향상	4.30	2(○)	LH	
	시민의식 향상	2.16	7(○)	HH	최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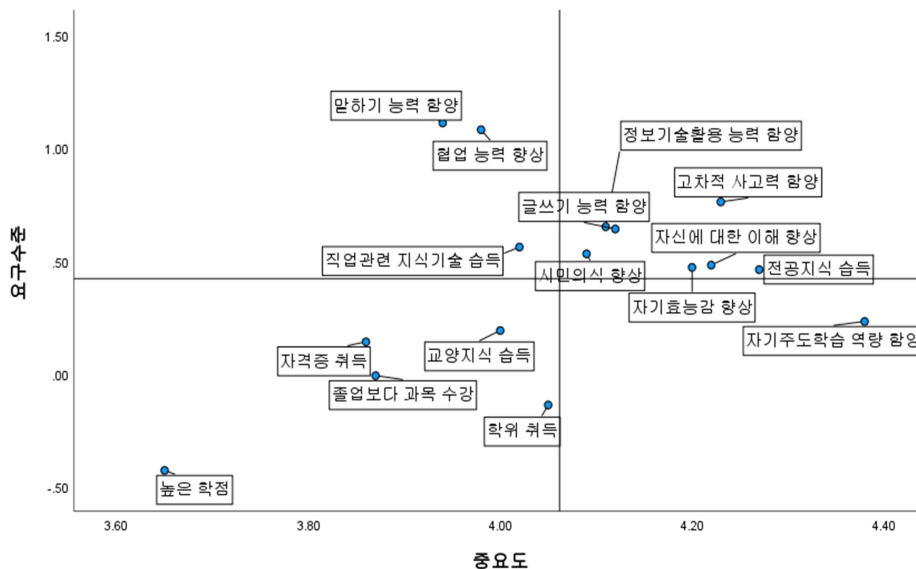
[그림 2]는 16개 대학교육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대성과를 LF 모델로 분석하여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중요도 평균 4.06, 중요도와 현재 수행도의 차이값인 요구수준의 평균은 0.42로 나타났는데 각 평균을 기준으로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중요도도 높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격차가 커서 요구수준도 높게 나타난 성과항목은 총 7개로 제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차적 사고력 함양,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 자기효능감 향상, 전공지식 습득,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글쓰기 능력 함양, 시민의식 향상이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평가하였으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수행도와와의 차이가 커 요구수준이 높은 영역으로 제 2사분에 위치하고 있는 성과항목들은 말하기 능력, 협업능력, 직업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사분면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도 크지 않아서 요구수준이 낮은 항목들로 자격증 취득, 관심과목 수강, 학위취득, 높은 성적, 교양지식 습득이 위치하였다.

제 4사분면에 위치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는데 중요도와 현재 대학교육의 수행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요구수준이 낮은 영역으로 응답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성과항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16개 항목 중 자기주도학습 역량만 위치하였다.



[그림 2] 대졸 성인대학생의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LF 모델 분석

LF 모델 분석 결과에서 제 1사분면에 위치한 7개와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7개 항목을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모두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4개 항목이다. 글쓰기 능력 함양,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고차적 사고력 함양, 시민의식 함양으로 이 성과항목들이 현재 대학이 최우선하여 개선해야 할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IPA 분석결과에서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아 대학의 집중 개선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 속한 4개의 항목과 동일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연구에서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이 현재 재학 중인 A대학의 교육을 통해 글쓰기 능력 함양, 정보기술활용 능력 함양, 고차적 사고력 함양, 시민의식 함양을 가장 우선하여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이 기대하는 대학교육의 학습성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졸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학부교육의 학습성과와 이에 대한 현재 대학의 수행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였고, 16개의 학습성과에 대한 IPA 결과, Borich 요구도 점수,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을 사용하여 대학에서 집중해야 할 학습성과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에서 고학력 성인학습자가 대학교육에 기대하는 학습성과 중 과잉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학위취득, 자격증 취득, 높은 성적, 관심과목 이수, 교양지식 습득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은 교양지식 습득을 제외하고 모두 가시적 성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학력 성인들이 학습성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대학의 교육체제와 지원이 지나치게 이들 성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고학력 성인이 학위취득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예상가능한 결과로, 배나래(2020)의 연구에서도 인터뷰 참여자는 “점수가 좋으면 좋겠지만, 신경쓰지 않았어요”(p.189)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가시적 성과들은 학습동기가 목적지향이든 학습지향이든 상관없이 일반적인 성인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의 가치들이다. 정규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직업관련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학습자뿐만 아니라 고학력 성인학습자에게도 대학입학의 중요한 동기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위나 자격증 취득이라는 학습성과 자체만으로 고학력 학습자들이 대학교육에 만족하면서 졸업까지 학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점차 고학력화되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만족스러운 학습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가시적인 학습자 내면의 학습성과에 주목하고 해당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이 연구의 결과는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고학력 성인학습자가 대학교육에 대해 높게 기대하는 학습성과는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역량을 포괄하는 비가시적 성과 항목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연구 결과,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은 자기주도적 역량 함양,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 자기효능감 향상 등 자기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성인대학생의 핵심역량 교육요구를 분석한 박진영 외(201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69개 역량 항목 중 자기통제(5위), 자발적 학습(10위), 자기주도학습(14위)이 상위에 위치하였다. 성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대학교육 만족도 및 학습성과 인식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한 박상욱의 연구(2015)와도 유사하다.

이처럼 고학력자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의 학습성과로서 자기개발 및 관리와 같은 비인지적인 태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성인학습자가 참여하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인학습자들이 참여하는 교양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교양

지식 습득은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대학의 수행도도 낮게 평가하고 있어 교양과목에 대한 만족도도 낮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체로 성인학습자들은 전공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폭넓은 교양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 큰 기대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김혜경, 윤희정, 진성희(2019)의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들이 교양과정으로 전공기초과목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런 경향을 설명한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은 이미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 편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교양과목을 수강할 필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1학년으로 입학한 고학력 학습자도 있다는 점에서 성인학습자의 관심과 기대에 적합한 교양과목을 개설, 운영할 필요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관련 연구(김혜경, 윤희정, 진성희, 2019; 서성수, 심미경, 2021)에서 전통적인 학문기초나 인문학적 소양을 다루는 교양지식의 범위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개인의 삶과 관련성이 높거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이 높은 내용을 다루는 교양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내용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역량,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효능감 향상 등 자기개발과 관리에 대한 내용도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성적으로 기대가 높은 만큼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 역시 교양 교육과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이 기대하는 대학교육의 학습성과 중 최우선하여 개발 노력이 필요한 항목은 고차적 사고력, 정보기술활용 능력, 글쓰기 능력, 그리고 시민의식 함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층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하나는 20대의 학령기 학생들과 성인학습자가 대학교육에 대해 기대하는 학습성과가 유사하다는 부분이다. 비판적, 분석적 사고력으로 대표되는 고차적 사고력, 정보기술활용 능력, 글쓰기 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능력,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식은 최근 대학의 교육성과로 강조되고 있는 핵심역량이며, 학령기 대학생들도 교육요구가 높은 역량들이다(변수연, 한우진, 2022; 진미석 외, 2007).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청년들과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기대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다를 수 있다. 학령기 학생들은 사회나 대학에서 기대하는 내용을 자신의 요구로 내면화한 것일 수 있는 반면, 성인학습자가 기대하는 대학교육의 학습성과의 내용은 이들의 다양한 생애경험을 통해 한 번 걸러져 반영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령기 학습자의 학습성과는 교육제공자인 대학의 기대성과라면,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는 학습자의 기대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성인학습자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때 고차적 사고력,

정보활용 능력,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의 내용을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생애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구체화시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이 기대하는 학습성과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항목은 고차적 사고력에 대한 부분이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적응을 위해서는 주로 기초학습능력을 보완하거나 전공기초이론을 다루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박소연, 2014; 박진영 외, 2014). 이는 지금까지 주로 생애 처음으로 대학교육에 참여하거나 장기간 학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성인학습자를 고려한 결과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고학력 성인학습자들은 고차적 사고력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도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미 앞선 대학교육의 경험으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교육내용인 고차적 사고력 함양 등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차적 사고력은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등으로 불리며,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진미석 외, 2007). 따라서 대학은 성인학습자들이 점차 고학력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기초학습능력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고차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성인학습자가 주된 학습자층을 이루고 있는 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고학력 성인학습자에 대한 이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확대로 성인이 입학할 수 있는 일반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고학력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성과항목은 기존의 대학교육에 대한 성과항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차용한 것으로 성인학습자 측면에서 인식하는 성과목들 도출하여 측정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참고문헌

- 구유정, 오석영, 박수연(2021).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경험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평생학습사회**, 17(1), 27-48.
- 구주형, 한상훈, 강훈(2015).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 참여동기, 학습성과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7), 4537-4548.
- 곽삼근, 윤혜경, 박진아(2011). 대학평생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성인학위과정에 대한 요구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7, 93-122.
- 권대훈(2018). 대학생의 학업통제, 학업가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목표몰입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6(2), 25-47.
- 김애련(2004).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연희, 정재삼, 이종경, 이유진(2010). 대학생이 인식하는 핵심역량과 교육요구도 분석. **교육방법연구**, 22(4), 1-20.
- 김혜경, 윤희정, 진성희(2019).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3(3), 147-177.
- 남신동(2013). 한국 준형식 평생교육제도 팽창의 사회적 동인으로서 성인학습자의 학습열 탐구. **평생학습사회**, 9(3), 47-72.
- 박상욱(2015). 성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고등교육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G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8(1), 77-102.
- 박상욱, 노경란, 이은경, 장환영, 현영섭, 엄보현(2012).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 탐색**(CR 2012-3).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박소연(2014).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요구분석. **한국정책연구**, 14(2), 45-61.
- 박진영(2007). 수용적인 다연령 혼합 대학환경 조성을 위한 성인대학생-일반대학생간의 상호작용 탐색-일반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3, 55-87.
- 박진영(2008). 직장에 다니는 성인대학생들의 역할갈등 경험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4(2), 85-106.
- 박진영(2010). 성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6(4), 1-29.
- 박진영, 윤대환, 윤현숙, 오선아(2014). 대학평생교육을 위한 성인대학 핵심역량모델 개발 및

- 교육요구도 분석: 학생-교수간 인식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0(3), 121-158.
- 변수연, 한우진(2022). 미래 대학의 핵심역량 교육에 대한 대학생 교육요구도 분석. **교양교육연구**, 16(3), 101-116.
- 변수연, 이수정, 배상훈(2023). 대학생이 대학교육에 기대하는 성과, 비용 부담과 교육서비스 만족도 간의 관계분석. **교육행정학연구**, 41(1), 283-309.
- 배나래(2020). 고학력 성인학습자 교육동기의 현상학적 이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2), 182-191.
- 서민원, 지은림, 황청일, 주언희(2013). 대학생 학습성과 측정도구 구안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26(2), 275-296.
- 서성수, 심미경(2021).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양 교육과정 개설 방안 연구-Y 대학 미래 융합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5(1), 179-194.
- 송영선(2018).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 주도학습의 매개효과. **평생교육학연구**, 24(2), 31-55.
- 신미정, 정철화, 우희정(2020).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자특성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참여동기와 학습참여저해요인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6(3), 177-204.
- 안현용(2013). 고등교육 과정으로 '되돌아온' 성인여성학습자의 학습 경험 분석: 모성적 돌봄 경험과 근대적 학습경험의 상호 간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은아, 김민수, 안소희(2021).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한 성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 양상과 영향요인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7(1), 31-69.
- 이성희(2017). 4년제 대학으로 되돌아온 성인 '여성'의 학부교육경험 사례연구. **평생학습사회**, 13(4), 25-49.
- 이숙원(2002).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참여지속 결정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 정연희, 김명진(2020). 원격대학 진학동기 유형에 따른 학업중단 여부와 영향요인 차이, **평생학습사회**, 6(3), 63-91.
- 이정의(1997). 대학사회교육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참여자의 배경특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권진희(2016). 성인대학생이 경험한 평생학습중심대학,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경계. **평생교육학연구**, 22(3), 55-85.

- 정연희, 한송이(2018). 원격대학 학습자의 세대별 사회문화적 특성 및 학업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평생학습사회**, 14(4), 167-201.
- 조대연(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
- 진미석 외(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서정 및 문항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최동선, 김남희, 류지은, 이상훈, 임언, 안현용, 임정훈(2021).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상덕, 함효정(2019). 성인의 수요 분석을 통해 본 대학평생교육의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평생학습사회**, 15(4), 1-26.
- 최운실(2005).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분석-HRD 자본, 사회문화적 자본, 개인적 자본 측면의 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4(3), 381-420.
- 최정운(2009).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I): OECD AHELO 사업 참여를 위한 실천전략 탐색**.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정운, 이병식(2009).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대학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1), 199-222.
- 한상길(2011). 중년 성인대학생이 배움 활동에 비취본 삶이 의미 재구성.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4(1), 39-70.
- 홍아정(2010). 성인대학생의 학습동기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학연구**, 48(3), 159-186.
- 황영아, 이선희, 정소미(2020). 대학 내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771-795.
- Astin, A. W. & Antonio, A. L. (2012). *Assessment for excellence(2nd ed.):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Bhattacharjee, A. (2001).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An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MIS Quarterly*, 25(3), 351-370.
- Donaldson, J. F. & Graham, S. (1999). A model of college outcomes for adults. *Adult education quarterly*, 50(1), 24-40.
- Ewell, P. (1985). Assessment: What's it all about? *Change*, November/December, 32.
- Flynn, D.M.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al orientation, life change events, ego identity and select demographic variables among returning adult graduate*

- stude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ary-wood University, Pennsylvania, USA.
- Francois, E. J. (2014). Motivational orientations of non-traditional adult students to enroll in a degree-seeking program. *New Horizons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26(2), 19 - 35.
- Holmes, G., & Hooper, N.(2000). Core competence and education. *Higher Education*, 40(3), 247-258.
- Houle, C. O. (1961). *Inquiring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asworm, C. E. (2018). Adult students: A confusing world in undergraduate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Continuing Higher Education*, 66(2), 77-87.
- Shavelson, R. J. & Huang, L. (2003). Responding responsibly to the frenzy to assess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Change*, 35(1), 10-19.

- 논문 접수 2023. 10. 24. / 수정본 접수 2024. 01. 16. / 게재 승인 2024. 02. 06
- 정혜령: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평생교육 전공 석사를 거쳐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성인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평생교육, 원격고등교육, 성인학습자 등임
- 노일경: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평생교육전공으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평생교육, 원격고등교육, 문해교육, 성인학습이론 등임.
- 김명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평생교육, 원격고등교육, 학습분석 등임

- 우영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공학 전공 석사를 거쳐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원격교육, 교육공학, 교수학습전략, 에듀테크 등임

Abstract

Exploring the Learning Outcomes of College Education Expected by Highly Educated Adult Learners

Jung, Hyeryung(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Noh, Ilkyung(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im, Myungjin(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Woo, Younghee(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growing trend of adult learners with bachelor's degrees or higher returning to university education, prompted by the widespread accessibility to higher education. Additionally, it sought to explore the learning outcomes they expect from their re-engagement with university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16 learning outcomes and the current performance of universities were investigated among adult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at a 4-year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The responses of 841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Borich Needs Assessment,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there were high expectations for higher-order thinking skills, information technology proficiency, writing skills, and fostering civic awareness, there was a need for intensive improvement efforts by universities as they were not rated highly in current performance. Conversely, degree or certification attainment, achieving high grades, and acquiring general knowledge were identified as areas where universities are overly focused compared to the expectations of highly educated learners, indicating a need for improvement in university education strategies. Based on these finding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are presented.

* Keywords: highly educated adult learners, learning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core competence, universalization of higher education